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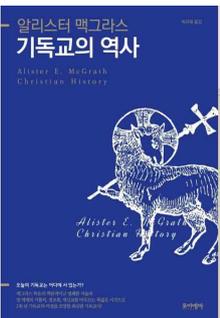


2021 YANG YOUNG HOE

## 열두번째 이야기

#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 친밀하심을 따라⑨-교회사2 세미나 후기 ]



꽃피는 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온라인에서 15세기의 종교 개혁부터 1960년대 이후까지의 긴 과정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함께한 BEE 식구들의 여행 소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 윤현덕 장로

교회사2 세미나를 통해 조각조각 알고 있던 교회사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알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고, 역사적 사건 속에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그노와 청교도에 대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흠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민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지요.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묘함을 경험합니다. 지금의 브라질, 남미, 중남미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인 곳이라 최근의 개신교 부흥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인구 2억 명 중 5-6천 명이

개신교 기독교인으로 성장, 부흥하고 있어서 말씀 사역이 더욱 중요한데 BEE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BEE 교재를 번역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바람을 일어날 것을 기대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노한주 장로

개인적으로 루이스 책과 온누리 교회 기독교 영상 플랫폼 '풍당'에서 '순전한 기독교'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나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구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 정리하고 구분 하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EE 공동체를 통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요즘 읽고 있는 제자 양육에 관한 책에 나오는 여러 공동체 모습 중에서 BEE 공동체가 제자를 양육하고 리더들을 세우는 공동체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BEE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정문 권사

이 시간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근현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맥그라스 책 서문에서 전체 스케치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여행 안내서이고 다른 곳을 여행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미나를 마치는 지금, 교회사과 한국 교회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떤 기독교 시대를 살아갈 것에 대해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충현 집사**

교회사2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종교개혁입니다. 공부해가면서 근본주의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주의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고, 근본주의에 대해 놀람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층이나 식자층이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있고, 창조론이 과학자에게 무시당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나 도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제운 집사**

젊은 시절에 감명받은 인물이 '폰회퍼'인데 당시에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미나를 통해 시대적 맥락 속에서 폰 회퍼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가 오히려 히틀러 편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고 교회를 지키며 핍박받는 모습, 나치 박해 중에 미국에 갈 수 있었으나 독일 국민과 고난을 함께 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 재건에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며 독일 국민과 고난을 함께하는 모습,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시를 통해 히틀러 암살에 참여하며 해방되기 전에 처형당한 삶의 모습 등을 통해 그의 삶에 공감하며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와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혜 권사**

세미나를 통해 역사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걸고 험한 길을 간 루터의 모습이나 자신의 평온한 삶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한 길을 간 인물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EE로 보내지 않으셨나 합니다. 물론 지금 BEE 사역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 집사**

세미나를 통해 국가와 교회의 적정한 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미국에서의 정교분리, 수정헌법, 독일 교회가 히틀러 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나타난 영향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정치적 사상에 맞추어 가는 것에 대해 속고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르멘 선언에서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확산에 비추어 교회가 신조를 수정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을 통해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 권사**

세미나 가운데 연도, 인명, 지명, 사건 등의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해나가는 과학에 보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세기를 개관할 때 창조론과 대비되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지적 설계 운동에 대한 좀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 대서양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대각성운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여파로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선교의 역사,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적 설계론 Intellectual Design**



**김난이 집사**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종교를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흑인 여성의 버스 보이콧 운동을 통해 인종 분리를 종식시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의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온 가족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가야겠다고 다짐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루터 목사의 '나에게 꿈이 있다'라는 말이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도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에 대해 기대와 감사함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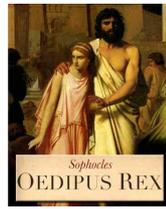
**이용구 집사**

책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때는 기독교에 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외국에서 들어온, 사회 지배를 위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했으나 제국주의와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기독교가 정치, 군사적 힘을 따라서 왔으나 메시아를 바라며 고통을 치유하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삼자교회가 현실과 타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국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데 바탕이 될 것이며, 우파에 들어가서 개혁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희주 권사**

세계 역사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으나 이 세미나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많은 분파와 싸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성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때론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세계사 속의 친첸도르프와 모라비안 형제들, 특히 요한 웨슬리의 모습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웨슬리가 회심 이후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전 인생으로 살아내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낸 삶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현숙 권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이트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과 많이 달라 놀랐습니다. 프로이트는 종교의 기원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으로 설명하고, 종교를 인간이 만든 것이고 환상이며, 그 기원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찬을 죄의 속죄의식에서 풀어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의 프로이트의 정신세계와 이론의 근본을 알게 되면서 이론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전부 알아야 하며, 이제부터는 더욱 성경을 보며 분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준구 집사**

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즉, 하나님이 없고 상대적 만족을 추구하고 절대 진리를 배제하는 시대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자유신학의 태동이 계몽주의에서 시작되었고, 사회경제학도 이성이 진리로 여기는 사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이신론의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포장된 무신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것을 믿는 독일 사람들의 사상과 사실만을 강조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혁수 집사**

교회사 1, 2 모두 수강하였는데 과거의 역사와 가르침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최고라는 생각했는데 츠빙글리, 칼뱅을 보면서 루터에 대해 약간 실망하기도 하였고,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부흥 차이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님 말씀처럼 '보편적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선교지  Kenya



**【국립공원-마사이마라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Masai Mara National Reserve)】**

아프리카의 관문인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는 야생동물의 세계에 관한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되는 세계적인 명소이다. 영화 '라이언 킹 Lion King'의 작품구상이 이루어진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연결되어 있다. 많은 관광객은 열기구를 타고 사바나에서 펼쳐지는 대자연의 감동 서사시를 내려다보기도 한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17:21).”
2. 매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하는 BEE 선교사역을 위한 중보 ‘5분 띠기도’, 7시간의 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띠가 되어 기도합시다!
3. 매주 토요일 6:30, 서빙고 비전홀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BEE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해요!
4. BEE Korea 예배 팀원을 환영합니다. 찬양과 악기로 찬양해요~